



Korea Institute for
International
Economic
Policy

향후 5년간 중국의 금융정책 기조와 평가

KIEP 북경사무소(ojh@kiep.go.kr, Tel: 86-10-8497-2870)



차 례

1.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주요 결정사항
2.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
3. 평가

주요 내용

- 2017년 7월 14~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(全国金融工作会议, 이하 '5차 회의')가 개최됨.
 -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리는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, 이 회의에서는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 기조와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함.
 - 5차 회의에서는 △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금융 개혁발전 성과 평가 △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△금융안보 △금융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.
-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는 △관리감독 강화 △실물경제 지원 확대 △금융 리스크 예방 등 세 가지 측면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.
 - [관리감독 강화]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감독의 권위성 보장 및 통일된 관리체제하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 보완 예정
 - [실물경제 지원 확대]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 확대, 자본 경영 비중 제고, 관련 제도 구축 등 직접금융 비중 제고 실시,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
 - [금융 리스크 예방] 중국 금융 리스크는 금융업 내부 문제 외에도 부동산,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
- 이번 5차 회의는 △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△금융감독기구의 통일성 및 각 부문간 협조 필요성 강조 △미시적 금융관리감독책임 강조 등 향후 금융안정발전의 관리감독 이념 및 모델이 제시되는 등 금융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됨.

1.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주요 결정사항

■ 2017년 7월 14~15일 양일간,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(全国金融工作会议, 이하 '5차 회의')가 개최됨.

-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열리는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, 이 회의에서는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 기조와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함.
- 이번 5차 회의에서는 △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금융 개혁발전 성과 평가 △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△금융안보 △금융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.

■ 5차 회의에서는 '통일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, 4대 원칙, 3대 과제'를 결정하였으며, 금융업을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안보의 주요 부분으로 언급하는 등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.

- [통일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] 기존 일행삼회¹⁾의 상위 감독기관 격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(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)를 신설하고, △금융개혁 및 감독 총괄 △통화, 재정 및 산업 정책의 협조 체제구축 △관리감독 권위성 및 유효성 강화를 통해 금융업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.
- [4대 원칙] 중국정부는 향후 △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△금융시장, 기구, 상품 및 시스템 개선 △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관리 능력 제고 및 법률 제정 추진 △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, 금융 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을 통한 시장주도 메커니즘 구축 등 4대 원칙을 제시함.
- [3대 과제] 향후 5년의 금융개혁은 관리감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, △실물경제 지원 강화 △금융 리스크 예방 △ 금융개혁 심화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함.
 - [실물경제 지원 강화] 금융업과 실물경제의 조화를 강조한 만큼, 향후 △직접금융 발전 △간접금융 구조개선 △보험업의 장기 리스크 관리기능 촉진 △인클루시브 금융²⁾제도 구축 △금융기구의 경영 비용 감축 등이 예상
 - [금융 리스크 예방] 현 정책입안자들이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금융 리스크의 선도지표로 보는 만큼 향후 금융 리스크 방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기업의 디레버리징(Deleveraging) 위주로 진행
 - [금융개혁 심화] 금융기업제도 및 규제 개선, 금융개방을 통한 금융개혁 심화 가능성 제시

1) 중국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(증감회), 은행감독관리위원회(은행감독), 보험감독관리위원회(보감회) 등 3개의 위원회를 의미.

2) 인클루시브 금융(普惠金融, Inclusive finance)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같이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일종.

■ 역대 4차례 개최된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주로 △금융기구 개혁 △금융감독 △자본시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짐(표 1 참고).

- [1997년 1차]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해 △4대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국유은행 불량자산 처분 △특별국채 발행, 은행 자기자산비율 관리 등 중국인민은행 내부 개혁 단행 △증권감독위원회, 보험감독위원회 설립을 통한 금융감독 분업체제 확립을 추진함.
- [2002년 2차]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국유 상업은행 및 금융관리감독 개혁 가속화를 위해 △국유상업은행 주식제 개혁 실시 △은감회 설립 △증권시장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 등을 추진함.
- [2007년 3차] 중국정부는 은행 개혁 가속화를 위해 △국가 정책성 은행 개혁 추진 △중국국제금융공사(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, 이하 'CICC') 설립 △외환 관리 및 메커니즘 구축 △회사채 발행 추진 △은행감독위원회, 증권감독위원회, 보험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함.
- [2012년 4차]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금융업의 다층적인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 이에 △금융 서비스 영역 내 민간자본 유입 △위안화 환율 형성기제 및 금리시장화 개혁 추진 △지방정부 부채 관리 및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△자본시장 및 보험시장 발전 등을 추진함.

표 1. 전국금융공작회의 회차 별 주요 내용

회차 (일시)	배경	중점 방향	분야	주요 내용
1차 (1997.11)	아시아 금융위기	리스크 예방	은행개혁	- 1조 3,939억 위안 규모의 은행 불량자산을 자산관리회사 설립 후 분리 이관 - 2,700억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4대 국유상업은행 자본금 보완 - 은행 대출 규모 축소 및 은행 자산부채 비율 관리 강화
			금융감독	- 증감회, 보감회 설립을 통한 금융감독의 분업감독체제 실행(은행업, 신탁업은 인민은행이 관리감독) - 인민은행의 성(省)별 분행제도 폐지 및 9대 지역 분행 설립 등 내부 개혁 단행
2차 (2002.2)	WTO 가입	개혁 가속화	은행개혁	- 국유은행개혁 영도소조 설립을 통한 국유은행 개혁 기반 마련 - 지역 상황에 맞는 농업신용사 개혁 진행 - 중앙후이진(汇金) 투자유한책임공사 주도로 중국은행업 구조조정 후 상장 실시
			금융감독	- 중앙금융공작위원회(中央金融工委) 폐지 - 은감회 설립(은행업 및 신탁업 감독)
			자본시장	- '법치·관리감독·자율·규범'의 방침에 맞춰 증권시장 시스템 구축

표 1. 계속

회 차 (일시)	배경	중점방향	분야	주요 내용
3차 (2007.1)	주요 국유 상업은행 상 장 작업 및 개혁 심화	개혁 가속화	금융기구 개혁	- 일행일책(一行一策) 원칙하에 정책성은행 개혁 추진 - 국가개발은행 전면적인 상업화 추진 - 중국국제금융공사(CICC) 설립
			금융감독	-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완비 - 외환보유고 관리 강화 - 금융법제 구축 - 해외 단기 자본유동(투기자본) 감독 강화 - 자금세탁방지 강화 - 금융업 질서 재편
			자본시장	- 자본시장 및 보험시장 발전 촉구 - 다층적인 금융시장 시스템 구축
4차 (2012.1)	경제 고성장 에 따른 금 융 발전 필요 성 대두, 지방 정부 부채 문 제 부상	개혁 가속화	금융기구 개혁	- 금융서비스 영역 내 민간자본 허용 - 국유대형은행의 전략적 전환 추진 - 중소은행 및 민영금융기구 발전 추진 - 보험업의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기능 촉진
			금융감독	- 금융감독 개선 -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- 지방정부 부채 관리 및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			자본시장	- 직접금융시장 발전 - 자본시장 시스템 다층화 - 자본시장 및 보험시장 구축 강화 - 금융시장 협력 발전 추진
5차 (2017.7)	금융발전 가속화에 따른 관련 관리감독의 부재, 높아진 금융위기 가능성	리스크 예방	금융기구 개혁	- 국유대형은행의 전략적 전환 추진 - 중소은행 및 민영금융기구 발전 추진 - 보험업의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 촉진 - 소형 기업, 삼농(농업, 농촌, 농민), 외지에 대한 금융서 비스 강화 - 빈민구제를 위한 금융발전 - 녹색금융 발전
			금융감독	-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 - 중앙은행의 거시관리 및 시스템 리스크 예방책임 강화 - 금융감독 부문 책임 강화 - 돌발문제 발생 시 부문간 협조 및 종합관리 강화
			자본시장	- 직접금융 발전 추진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완비 - 제도 기반 구축 - 효율적인 시장 감독체제 구축 -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는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 스템 구축

자료: 『申万宏源』(2017), 「2017年全国金融工作会议点评:回归本源强化监管」, (7月16日)

2.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

가. 관리감독 강화

■ 5차 회의에서 금융업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주시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예상

-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증시 폭락, 자금경색, 위안화 평가절하, 자본시장 파동 등 일련의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금융안정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
 - 아울러 그림자은행, 부외거래, 인터넷 금융 등의 성행과 함께 법규 및 규정의 위반, 규제 및 관련 행위를 통한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량의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누적됨.
-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'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업이 모두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서면서 금융 관리감독의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저항능력 강화가 필요하다'고 강조함.

■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감독의 권위성 보장 및 통일된 관리체제하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 보완 예정³⁾

-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관리감독의 협조체계 강화이며, 국무원 산하에서 일행삼회, 외환국, 발개위(发改委), 재정부 등의 금융관리감독 권위성 및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음.
 - 특히 일행삼회 체제에서 발생한 관리감독 부문 중복, 규제 사각지대,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 개선 및 혼합경영하의 금융혁신제품 관리감독의 귀속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통합된 금융관리감독을 통해 전문성, 통일성을 강화하고 적시에 리스크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함.
 - [기능 관리감독] 은행, 증권, 보험 등 업종과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관리감독기구 및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및 중복현상을 해결하고 혼합경영하의 금융혁신 제품의 관리감독문제 개선
 - [행위 관리감독] 공정 거래, 사기 예방, 개인정보 보호, 소비자 분쟁 해결, 불공정 경쟁 방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, 금융기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, 평가 및 관리 실시

3) 2017년 7월 15일 설립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인민은행의 상위 감독기관에 해당.

표 2.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개요

주요 역할	- 금융 감독관리 최고 기관(부총리급 담당)
기존 감독기구 역할 변화	- 인민은행: 거시적 관리 및 시스템 리스크 예방 능력 강화, 썬크뱅크(연구, 제언 등) 역할 강화 - 은감화보감화증감화: 집행기구로 변화
주요 관리 대상	그림자은행, 자산관리, 인터넷 금융, 금융 자회사

자료: 「周小川首提金融稳定发展委员会 关注四大问题」(2017. 10. 18), 「中国新闻网」; 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的权力到底会有多大?」(2017. 7. 17), 「和讯网」 등을 바탕으로 정리.

나. 실물경제 지원 확대

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 확대, 자본경영 비중 제고, 관련 제도 구축 등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직접금융 비중 제고를 실시하고, 실물경제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를 기업의 융자난과 과도한 운영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레버리지 비율 감축이 기대됨.

- 간접금융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후퇴기에 불량자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여 정책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으며, 정부는 직접금융 비중 제고를 통해 실물경제 발전을 유도해야 함.
- 과거 중국은 제도 미숙과 규제차익 발생,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조달 구조가 불투명했음.
- 직접금융 비중 확대를 위해 △상하이 A주⁴⁾ 블루칩 222개 종목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(MSCI) 신흥시장지수 편입 △베이샹통(北上通)⁵⁾ 개통 △개인소득세 연장형 양로보험 출시 △양로금(연금) 및 기업연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을 추진하여 4조~6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입시킬 전망
- 모건스탠리 화신(华鑫)증권 장권(章俊)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‘중국의 금융 시스템 발전 단계를 고려해볼 때, 중국정부는 직접 및 간접 금융의 동시 발전전략을 견지하되 직접금융의 혁신을 통해 비중 제고를 원하는 것’이라고 평가함.
- 중국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주도의 간접금융 위주이며, 직접금융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자금 지원에는 제약이 존재함.
- 직접금융 비중 확대를 위해 △메인보드 시장제도 완비 △장외시장, 신삼판⁶⁾의 적극적 발전 △지

4) 내국인과 허가받은 외국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한 주식시장.

5)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의 인프라 건설 거래, 위임, 결산 등 영역에서 중국 본토의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시장.

6) 신삼판(新三板)은 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장외 주식시장을 가리킴.

역성 주식거래시장⁷⁾ 규범화 발전 추진 △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장외시장 위주의 채권시장 발달 등 관련 기반 시장 확장 및 자본시장 제도 구축 추진이 필요

■ 금융산업의 질적 발전 및 높은 효율성을 실현시키고 직접금융 발전을 중심으로 △자금조달 기능 완비 △제도 확립 △효율적 시장관리감독 구축 △투자자 권익 보호 등 다층화 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

- 인민은행이 최근 실물경제의 융자난 및 융자귀 해소를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했으나 자금이 오히려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상승 및 자산황(资产荒) 현상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, 자금이 비(非)실물경제로 유입될 경우 장기적인 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.
- 자금의 비(非)실물경제 유입은 시스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금융업 사슬을 복잡하게 연장시킴으로 기업은 단기수익을 위한 부동산, 사모펀드 등의 투자가 아닌 경영 중심의 혁신발전을 진행해야 하며, 이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가 필요함.
-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, 그중 은행업은 비실물경제로 유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실물경제로의 투자를 유인하여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구조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융자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임.

■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간접금융구조 개선, 국유대형은행의 전략적 전환 등을 추진하고 국유대형은행의 문제점 개선 및 민영금융기구와의 상생발전을 추진

-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(赵锡军) 부원장은 ‘은행업은 대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보다 혁신능력과 효율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’고 언급함.
- 경제환경 변화는 금리시장화, 인터넷 기술, 통신기술, 인공지능 등의 발전 및 각종 은행의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개선 및 사업의 전략적 전환을 추진하게 함.
- 금융 서비스 모델의 자금조달 방식 개선 요구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민영기구 역시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포지셔닝 정립을 필요로 하게 함.
-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쉬홍차이(徐洪才) 부총경제사는 ‘인터넷 금융 발전으로 간접융자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전통은행이 인터넷 금융과의 협력,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’을 강조함.
- 현재 간접금융 구조조정 시작 단계로 간접금융 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념, 전략, 메커니즘의 구축 및 제품의 혁신, 리스크 관리 등 전방위적 구조조정이 필요

7)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주식, 채권의 양도와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모펀드 시장.

■ 보험업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운용이 가능한 만큼 향후 직접금융 발전과정 중 주요 기관 투자자가 될 것으로 기대

- 보험은 시장경제 리스크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안정적인 내부 시스템 구축과 자본시장 영향력, 실물경제 보호 등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.
 - 자본시장 발전이 고위 관리층의 감자(Capital Reduction)에 따른 이익증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, 가치 증식을 통해 전체 보험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임.
 - 사회보험은 상업보험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자율규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서비스를 완비해야 함.
 - 관리감독 역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 및 법규가 각 정부 부문 및 상업보험 간 협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생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보험업은 향후 △제품 및 상업모델의 혁신을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 △재해 및 손해 보상 범위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보장의 개념을 유지하면서, 실물경제 운행 중의 리스크 분산을 통해 사회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임.
 - 아울러 2017년 회의에서는 직접금융 발전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자금규모가 크고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보험자금은 향후 자본시장 내 장기 및 가치 투자를 통한 직접금융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금융 리스크 예방

■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는 금융업 내부 문제 외에도 부동산,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, 비금융영역 등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, 향후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

-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으며, 부동산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금융자산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.
 - 중국 부동산시장은 공급부족에서 점차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나 부동산 주기 조정 실패, 구조적 불균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도한 자금의 유입 방지, 가격 조정 필요성 등이 부각됨.
 - 향후 금융업의 동질화 경쟁을 지양하고, 부동산 산업 발전을 통한 리스크 감소를 추진함.
- 일부 지방정부 보유 펀드가 은행의 자산관리 자금으로 유입되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면서 지방정부 채무와 금융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어 자금조달과 리파이낸싱 모델 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임.
 - 향후 지방정부의 플랫폼 용자, 채권 발행, 정부주도 펀드 투자 활동 등에 대한 책임 및 채무관리를

강화하고, 지방정부의 대출 방식 조정 및 전환을 통해 금융기구가 새로운 자산 확장 경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과 재정 관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.

-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국유기업은 금융업과 실물경제 분리를 가속화하고, 한정된 금융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삼농(三农, 농업·농촌·농민), 중소기업 등의 융자난 및 융자귀 현상을 가속화시킴.
 - 이번 회의에서 경제의 디레버리징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는 국유기업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며, 좀비기업 퇴출을 통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고 금융자원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임.
- 동시에 최근 급증한 자산관리업무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거시경제 조정을 어렵게 하여 잠재적 리스크 가능성을 높이며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음.
 - 중국의 자산관리업무는 공모펀드('98)에서부터 시작되어 은행과 신탁회사의 협력모델로 발전('09)하여 은행 재테크상품('12)으로 성행하며 급증함.
 - 특히 2012년부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자산의 부내거래(On-Balance)가 자본 제약을 받고, 금리시장화 및 관리감독 완화가 시행되면서 은행업은 자산관리 업무를 빠르게 발전시켰으며, 이는 대량의 예금이 재테크 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자산관리 업무의 폭발적 성장을 야기함.
 - 자산관리 업무는 개인의 투자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, 대부분 지불보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자원 분배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.

■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금융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실물경제 지원을 원칙으로 리스크 방지 방안 전개

-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천다오푸(陈道富) 부소장은 금융 리스크 예방은 △국유기업 및 지방정부 제약 증가 △금융업 잠재 리스크 식별 △금융 리스크 책임 소재 명확화 △중성적 통화정책 견지, 안정적 성장, 구조조정 및 총량조절 등 4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'으로 예상
 - 회의에서 금융 및 실물경제 리스크 예방 및 국유기업의 디레버리징, 엄격한 지방정부 채무증가 관리, 좀비기업 퇴출 및 리스크 발생 책임 소재 추궁을 강조한 만큼 향후 국유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제약 증가가 예상
 - 미시적 주체인 금융기구의 신속한 리스크 처리 중요성 및 책임을 강조하고, 자체 리스크 관리 프레임 구비 등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조기식별 및 처리 전망
 -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금융 리스크를 처리하되 지방정부 귀속지에 따른 리스크 처리 책임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해결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.
 - 금융 리스크 예방은 온건한 통화정책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성적인 통화정책 견지, 안정적인 성장, 구조조정 및 총량조절 간의 관계를 강조함.

3. 평가

■ 금융의 역할 및 지위를 제고하고 금융안보 문제를 전략적인 측면으로 격상하는 등 금융 발전 문제가 국가전략화 되었음.

- [금융업 지위 제고] 2017년 회의는 총리급이 주재하던 예년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최하고, 다섯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최고 지도부가 금융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‘금융은 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안보의 중요한 일부분이며, 금융제도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 중 중요하고 기초적인 제도’임을 강조함.
- [금융안보 전략] 5차 회의 주제는 ‘금융의 실물경제 지원, 리스크 방지, 개혁 심화’의 삼위일체로 금융안보의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 중의 전략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음.
- 금융안보 문제를 기술개발 성패 여부 혹은 단기적 시각이 아닌 국민, 국가 및 산업 간 이익의 조화를 중시하며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

■ 이번 5차 회의는 △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△금융감독기구의 통일성 및 각 부문간 협조 필요성 강조 △미시적 금융관리감독책임 강조 등 향후 금융안정 발전의 관리감독 이념 및 모델이 제시되는 등 금융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됨.

- 금융관리감독 분야는 장기적인 학습, 축적된 경험을 요하는 전문영역인 만큼 향후 관리감독 수준 제고 및 강화를 통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추진할 예정임.
- 중국은 신흥 경제전환국으로 금융기구의 종합화, 금융거래 전자화, 금융상품 다양화 등이 진행되면서 향후 관리감독 및 발전 기능의 분리, 금융혁신과 관리감독 강화 관계 조절이 필요함.
- 금융기구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거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, 최후 대출자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
- ‘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 아래 미시정책의 원활한 운용’을 주된 방향으로, 통화정책을 수량형에서 가격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통화정책 실행의 유효성 보장이 필요
-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잇달아 생겨나면서,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와 중복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, 규제차익과 부문간 목표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리감독의 통일성 및 각 부문간 협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2015년 시장 파동이 야기되었을 때 정보 공유 불충분, 협조기제 구축 미완 및 주식시장의 리스크 판단 착오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고, 현행 감독체제의 구성 조직, 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.

- 특히 현행 금융업 관리 분업체제는 영업허가 금융기구의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금융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존재함.
- 중국은 ‘온건한 통화정책 및 관리감독 강화 모델’을 채택한 만큼 향후 미시적인 수준의 금융관리감독을 실시,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부문을 중시한 자본 표준의 집행과 함께 8항 규정⁸⁾(‘中共中央政治局关于改进工作作风密切联系群众的规定’의 약칭, 八项规定)을 함께 적용하여 정책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임.
- 각 금융기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미시적 금융 리스크가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.
- 미시적인 금융기구 및 상품 리스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거시경제 리스크, 즉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- 금융관리감독 부문은 금융기구의 유동성 리스크 강화관리를 감독하고 정기적인 금융기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 사전예방을 통한 금융안정을 관리해야 함.

[참고자료]

- 「历次全国金融工作会议主要内容盘点」. 2017.『搜狐财经』. (7月6日)
- 「金融工作会议要点解读：四大原则 六大要点」. 2017.『中国证券网』. (7月16日)
- 「2017年全国金融工作会议点评:回归本源强化监管」. 2017.『申万宏源』. (7月16日)
- 「向松祚：人民币国际化需贸易和金融“双轮驱动”」. 2017.『21世纪经济报道』. (7月16日)
- 「全国金融工作会议精神详细解读2017|金融工作四大原则定调」. 2017.『南方财富网』. (7月17日)
- 「全国金融工作会议透露的六个重要信息—轩言·数语系列报告」. 2017.『招商证券』. (7月17日)
- 「全国金融工作会议释放哪些信号?」. 2017.『证券日报』. (7月17日)
- 「央行金融稳定局局长：国务院金稳会做什么怎么做」. 2017.『人民日报』. (7月18日)
- 「全国金融工作会议精神解读：奠定新时期金融稳定发展的基石」. 2017.『紫光阁微平台』. (8月16日)
- 「“一带一路”峰会将开启人民币国际化2.0时代」. 2017.『证券日报』. (5月15日)

자료 정리: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권오은 (oekwon325@ruc.edu.cn)

8) 2012년부터 실시된 고위 관직자들의 사치풍조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.